

# 사태해결 모색 긴박했던 이틀

탄성스님 "대화 계속해 화합해야 한다"  
월탄스님 "모두 잘될 것이다 기다려달라"

▲26일 오전 10시  
타워호텔에서 본사주지연합회 측의 법장, 밀운, 증원, 성덕, 도후, 진해, 보선, 현지스님 중앙총회측의 법등, 청화, 명진, 현웅스님 총무원측의 도법, 일철스님 정화개혁회의측의 정우, 성문, 종광 스님들이 만났다. 3시간 가량 비공개로 계속된 이 회의에서는 23일 본사주지연합회가 결의한 수습원칙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 4단체는 24일 오후 7시 예비모임을 가졌다.

▲26일 오후 7시  
타워호텔에서 비공개로 대화가 계속 됐으나 종회와 정화회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재역을 맡은 본사주지연합회가 '비상중회 구성'을 내용으로하는 6개항의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 모임에는 총무원측이 참여하지 않았다.

▲27일 오전 10시  
타워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서 역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화회의측의 정우, 성문, 종광스님과 종회측의 법등, 영담스님 교구본사주지연합회의 법장, 증원, 밀운스님이 만나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탄성스님과 월탄, 도법, 지선스님과 이길웅 총무원장이 방음해 회의 분위가 한결 고조됐다. 이 자리에서 정화회의측은 본사주지연합회가 내놓은 합의안에 전격 동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비상중회가 구성되면 비상중회에 즉각 청사를 내 줄 것이라는 의향도 밝혔다.

▲27일 오후 4시  
조계사 인근 찻집에서 탄성스님과 월탄, 명진스님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탄성스님은 "중립집행부를 구성해 하루빨리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종단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월탄스님은 "어떤 형태로든 종단을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승려대회를 연기해 원로스님들과 중정스님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직후 월탄스님은 "중도들의 각정이 많은데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잘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27일 오후 6시  
타워호텔에서 탄성스님과 종회측의 법등, 영담스님 정화회의측의 정우, 성문, 종광스님 본사주지연합회측의 법장, 밀운, 증원스님이 만나 2시간 가량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8시 30분경 저녁식사를 위해 회의가 중단된 가운데 법장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법장스님은 "탄성스님이 승려대회를 하지 않는 원칙 속에서 대화를 계속해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히고 "정화회의는 본사주지들의 합의안에 동의했으나 종회측이 입장을 달리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법장스님은 "오늘 합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걸 다 털어 버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의사까지 비추며 "이렇게 양측이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면 우리도 우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또 하나의 총무원을 차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보였다.

저녁식사후 기자들에게 공개된 회의는 20여분만에 끝나고 말았다. 종광스님이 "원론에 대한 합의라도 해야한다"고 말을 꺼냈으나 법등스님이 "각론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 원론의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승려대회를 연기했는데 정화회의는 개인회의 등을 진행하지 않았느냐"며 맞섰다. 결국 "승려대회를 하려면 하라" "승월주의 예하 부대가..." 등의 언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법등스님은 "비상중회도 중앙총회를 통해 적법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구성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화회의측은 "본사주지연합회의 합의안에는 동의하지만 종회측의 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탄성스님이 "종회위원장님 종회위원들과 더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를 더 하자"고 제안해 회의는 28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특별취재팀

# “사부대중의 바람은 종단 정상화”

월하스님 승려대회 언급 담화(21일)

●... 조계종 중정 월하스님이 승려대회를 금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월하스님은 21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금후 어떤 승려대회도 엄히 금한다. △중정의 교시와 원로회의의 결의를 거역해서는 안된다. △정화개혁회의는 빠른 시일내에 정화개혁조치를 마무리해 여법한 절차를 거쳐 새 집행부를 탄생시켜야 한다. △진 중도는 정화개혁회의를 중심으로 동체 제2의 정화불사를 원만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라고 밝혔다.

법등·도법스님 반박 성명(21일)

●... 월하스님의 담화문과 관련 중앙총회장 법등스님과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은 같은날 공동명의로 반박성명을 냈다. 두 스님은 성명에서 "더 이상 불법 폭력집단을 비호하지 말고 가련중법이 여법의 지극 지고 종단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평무사한 입장을 유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화회의, 승려대회 논평(21일)

●... 정화개혁회의(상임위원장 월탄)는 21일 '해산된 중앙총회 명의의 승려대회 개최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정화회의는 논평에서 "해산된 중앙총회 일부 스님들이 중립집행부 수호를 위한 승려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결의 발표는 중정예하와 원로회의 스님들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전종도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해중행위를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종회에 승려대회 유보요청(23일)

●...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23일 오후 3시부터 타워호텔에서 21명의 본사주지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종단 상화와 관련, 수습대책위원회를 11인으로 확대 개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종단 안정을 위한 수습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사주지연합회는 수습대책위 구성 외에 대책위 활동의 기본 방침도 정했다. △중립 집행 개정시에는 본사주지 연합회의 의원을 수렴토록 한다. △현 사태는 총무원장 선거로 해결한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수습방안을 강구한다. △중앙총회측에 27일자로 예정된 승려대회는 일단 유보할 것을 요청한다. △정화개혁회의 측에 수습기간 동안에는 종단 분규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진행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수습노력이 무산될 경우 능동적으로 승려대회를 개최하여 비상사태를 해결한다 등.

## 조계종 사태

도법스님 "정화회의 해산해야"(23일)

●...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립집행부에 의거한 선거를 통해 조속히 종단기구를 정상화하고 중무행정을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도법스님은 "중립집행부를 부정하고 중정을 전단하는 정화개혁회의는 해산해야 하고 즉각 총무원 청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정사만 접수하면 중정을 전단할 수 있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화회의, 장기집권야욕 비난(23일)

●... 이날 정화회의는 '월하스님 측근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면 해고 조치하고 공채를 통해 총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승려대회 강행 규탄 성명(24일)

●... 정화회의는 24일자로 '승려대회를 방자한 폭력대회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화회의는 "승려대회는 미명하에 폭력대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해중세력들의 존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가비대위 1080인 서명전개(25일)

●... 재가단체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25일 서울건지동 육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종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재가집진법회를 열어 문제해결의 원력을 드는

### 교구본사 주지연합회 종단사태 합의안

교구본사주지연합회의 11인 대책위가 작성한 수습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총회측과 정화개혁회의 측이 합의하면 그에 따른다.  
2. 양측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양측과 본사주지 동수로 비상중회를 구성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비상중회는 종단의 입법, 사법, 행정 총괄한다.  
3. 비상중회가 구성될 경우 비상중회에서 새 총무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과도집행부를 구성하

여 총무원을 관리한다.  
4. 비상중회 구성안에 어느편은 합의하고 어느편은 반대할때 합의가 되는 측과 힘을 합쳐 비상중회를 구성한다.  
5. 양측 공히 우리의 재산을 거부 할 때는 본사주지연합회가 독자적으로 종단 비상사태를 해결한다.  
6. 수습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본사주지는 어느편에도 가담하지 아니한다.

통해 '월하스님이 무대 뒤에서 상좌인 도법스님을 권한대행으로 임명, 장기집권의 야욕을 변칙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총무원 공권력무능 규탄(23일)

●... 조계종 중앙총무원 100여명이 23일부터 매일 오전 9시 총무원 청사에서 청사방향을 요구하며 출근정진을 하고 있다. 한편 총무원들은 23일 오전 11시 '폭력 방조 공권력 규탄 집회'를 광화문 4거리에서 갖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공권력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정화회의 부원장에 현근스님(23일)

●...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 월탄스님은 23일 집행부 부원장에 현근스님을 임명했다. 정화회의는 총무원 복귀시한 30일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



26일 오전 10시부터 정화개혁회의, 중앙총회, 총무원, 교구본사주지연합회 등 4단체가 종단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조계종 정화개혁회의는 26일 개원회의 직후 총무원 청사에서 정화개혁회의의 헌관식을 가졌다. (기사 1면)

자진포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서장은 총무원 호법부장 해운스님에게도 "승려대회 당일 각목 등을 조계사 경내로 반입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 달라"면서 폭력사태방지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정화개혁회의보 발행(20일)

●... 정화회의는 20일자로 대관 4쪽 분량의 정화개혁회의보를 발행 정화회의의 활동을 홍보했다. 이에 앞서 정화회의는 16일자로 정화개혁회의보 특보를 대관 8쪽 분량으로 발행했다.

조계종보승려대회보 간행(27일)

●... 조계종 총무원이 30일 승려대회를 앞두고 홍보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7일자로 대관 12쪽 분량의 조계종보를 발행했다.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도 25일자로 대관4쪽 분량의 '전국승려대회보'를 발행 전국 사찰과 불교 유관단체에 발송했다.

강원연합 사태해결 촉구(27일)

●...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덕암)은 11월 27일 현종단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강원연합은 결의문에서 △정화개

문화부 중무실 중재 나서

●... 조계종 사태 해결을 위해서 문화관광부 중무실(실장 이길웅)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무실은 13일 중앙총회와 총무원, 교구본사주지연합회, 정화회의 측을 한자리에 초청해 대화의 자리를 주선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총무원과 중앙총회측이 불참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중무실은 또 20일 서울 프레스센터로 4단체를 초청했다. 4단체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도 해결의 '열쇠'를 갈아 내는 소득은 얻지 못했다. 23일 중무실은 중무관실에서 4단체 대표들을 따로따로 만나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지양하고 한 발씩 양보해 화합 종단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일관적으로 요청했다.

특별취재팀  
(ytlm@buddhapia.com)

# 중정예하의 교시를 봉행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정화개혁회의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수행과 포교 중심의 청정교단을 건설하겠습니다.

중정예하와 전 종도의 뜻을 받은 정화개혁회의는 이제까지 행정과 중정을 앞세워 종단운영 전반을 파행으로 이끈 사관중심의 교단에서 수행과 포교를 우선으로 하는 청정교단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정진할 것을 밝힙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화개혁회의는

- 첫째, 수행과 포교 중심의 중기중흥을 신양하고 둘째, 본사중심의 교단운영체도를 확립하고 셋째, 교단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불교의 위상을 제고하는 세가지의 활동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정화개혁회의는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전종도와 이전만 불자에게 공개하오니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첫째, 당장이라도 본사중심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파장한 중앙총무기관의 공무행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본사중심제를 확립할 것입니다.
- 둘째, 지금이아말로 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중앙총무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총무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에 따라 대폭적인 분담금 삭감을 단행하여 지방교구 본사의 재정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 셋째, 세속화된 총무원장, 본사주지선거법 개정으로 무너지는 종단 위계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고질적인 종단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총무원장 및 본사주지 선거법 등 청정종단의 중흥을 호리는 제반 악법을 개정하여 승단의 화합을 이루고 수행자로서의 본래 위상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넷째, 본사주지 결집금지 조항 반드시 폐지시켜겠습니다.

본사주지스님들은 각 지역의 교교와 중무를 담당하는 실질적 운영진자임에도 개혁을 방자한 악법의 결집금지 조항으로 인해 중앙총무원에게 소외되어 왔습니다. 정화개혁회의는 이 조항을 폐지하여 본사주지스님들에 의해 중앙총무가 운영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제는 제도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되야 하고, 정화개혁회의가 비구니부 신설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비구니스님들은 우리 교단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그동안 교단운영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정화개혁회의는 비구니부 신설로 교단내의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을 증대하고 이 부서를 통해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실질적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예)교계 복지사업 진보분야에 걸쳐 비구니스님들을 최일선에 배치해 복무시킬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전문적 분야의 재가신도를 중심으로 교단운영 참여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종단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온 이전만에 이르는 재가신도에 대하여 정화개혁회의는 교단운영에 합리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포교일선에서 고생하는 불교신행단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교단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예) '상인'과 '하인' 양원제를 신설해, '상인'은 계단위원 및 법리에 받고 경학에 밝은 스님들로 구성하고, 하인은 진문분야의 재가신도들로 구성하여, 21세기 한국불교의 위상정립을 세롭게 정립한다.

종도여러분! 이전만 불자여러분!  
제2정화불사를 주창하신 중정예하의 교시를 봉행하는 것은 오늘의 종단현실을 극복하고 21세기 청정종단을 마련하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부파불교에 대항하여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났듯이 이제 우리에게는 모두가 함께 피안의 세계로 가는 제2정화불사운동에 동참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거룩한 불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라도 열려있는 정화개혁회의의 일주문을 통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2년(98년) 11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정화개혁회의